

종합·해설

# “보편적 복지·평화의 길 책임 지겠다”

## 민주 손학규, 나주시 희망 대장정 간담회 갖고 농민 애로 청취

전국을 돌며 100일간의 ‘희망 대장정’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6일 나주를 찾아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농가를 방문하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손 대표는 이날 오후 나주시청에서 열린 ‘민주당 시민 토론회’에 참석해 나주시민 300여 명과 간담회를 했다. 손 대표는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복지·민생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2012년 정권교체를 위해 민주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사말을 통해 “서민 예산은 뒷전인 채 형편예산·특정지역 예산을 챙기는 현 정부와 한나라당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제 우리 국민의 권리를 우리가 찾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전국을 돌며 호소하고 서명운동도 벌였지만, 이명박 정부는 끄떡도 하지 않았다. 들은 척도 않고 눈을 감고 있었다”라며 “이제는 민주당이 나서서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고 서민정책·평화정책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가 민주주의, 서민복지, 평화를 지키는 길은 나서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며 “국민과 토론하고 국민의 뜻을 모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전국 시·군·구의 국민을 직접 찾아 만나보기로 했다”고 희망 대장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것은 단순히 적대적으로 쳐버리겠

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나라를 책임지고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남과 광주는 민주주의를 세운 자랑스러운 곳”이라며 “서민이 우선인 경제와 전쟁이 아닌 평화의 길을 여기서부터 열어가는 것”이라고 시민들에게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나주시민들도 현 정권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나타냈다.

한 시민은 “10년 후 농촌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농촌에는 팽배한 데 이명박 정부는 말로만 농민·서민정책을 외치면서 실상 서민과 농촌을 방치하고 있다”라며 “민주당이라

도 나서서 농촌살리기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들은 이 자리에서 ▲농촌 살리기 특별위원회 구성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 쌀 재계 지원 ▲귀농자 지원 정책 ▲축산허가제 도입 반대 ▲영산강 사업, 4대 강 사업과 별도로 당론 정리 ▲보육시설 예산 증액 ▲나주혁신도시 성공 추진 등을 민주당에 건의했다.

손 대표는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 필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상생, 부자 감세 지지 및 서민 감세 실현을 위한 세제개편, 시혜적 복지를 넘어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5개 분야 30대 서민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며 “내년 총선과 대선을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 민주당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손 대표는 토론회마당 이후 나주 한 농가를 방문해 농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오후 8시부터는 남평 평산 2구 마을회관에서 마을 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방담화 등을 열고 주민들의 고충을 들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마당에는 손 대표를 비롯한 박준선 최고위원, 이낙연 사무총장, 김동철·주승용·김재균·이윤석·최인기·유재철·장병완 의원 등과 나주시민 300여 명이 참석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6일 오후 나주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시민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 민주 ‘빅3’도 대권행보 시동?

## 孫 2차 장외투쟁 통해 국민 속으로 가까이 丁 재단 발기인대회, 鄭 김정일 면담 요청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대권 행보에 시동을 건 가운데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정세균 최고위원도 올 들어 대권 행보에 속도를 내는 등 대권 경쟁 분위기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

1차에 이어 2차 장외투쟁을 벌이면서 보복을 받고 있는 손 대표는 이번 대장정을 통해 국민 속으로 가까이 다가간다는 각오다. 전국을 돌며 국민에게 민주당 정권 탈환의 가

능성을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야당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이미지를 확고히 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같은 손 대표의 독주 체제에 대한 이른바 ‘빅3’의 다른 축인 두 정 최고위원이 경쟁에 뛰어 들었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6일 2007년말 발생한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 현장을 방문, 피해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가 지난해 10·3 전 당대회 이후 개인적 차원에서 공식적

인 대외 일정을 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축인 인사는 “이번 현장 방문은 대선 행보의 신호탄”이라며 “국민의 관심이 멀어졌지만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민생현장을 계속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또 이날 사실상 대선 배스캠프 격인 재단법인 발기인 대회도 갖고 ‘빅3’ 가운데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대선플랜을 가동할 예정이다.

당 남북평화특위 위원장이기도 한 정동영 최고위원은 복지와 평화 문제를 두 축으로 이슈 선점을 시도하고 있다.

그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통해 방

북 및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면담을 공식 요청한 데 이어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한반도 평화 대토론회’를 갖는다. 오는 20일에는 복지 문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며 조만간 비정규직 문제를 테마로 전국 순회도 추진키로 하는 등 선명성 행보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는 특히 6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당내 ‘보편적 복지 특위’ 구성을 촉구하며 공개적으로 손 대표에게 견제구를 날렸다. 그는 “재원 대책 없는 복지 허구이고 가짜로, 민주당이 집권하면 구체적 복지 해법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보여줘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손 대표에게 여러 번 요구했는데도 아직까지 구성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벌써 잊었나”... 썰렁한 DJ 생일

## 동교동 인사·가족 국립현충원서 추도식 한화갑 “국민의 정부 인사 안보여” 한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일인 6일 오전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추도식이 열렸으나 국민의 정부 시절 국무총리와 각료, 청와대 비서관 등 국민의 정부 인사는 한숨진 상당수가 불참, 썰렁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날 추도식은 이회호 여사를 비롯해 김홍업·김홍길씨 등 가족, 권노갑·한화갑·김옥우·최재승·윤철상 전 의원 등 동교동계 인사, 민주당 정동영·신나균·정범구·정병헌 의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단법인 ‘행동하는 양심’의 이사장인 이해동 목사의 추도예배 형식으로 1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하지만, 국민의 정부 시절 총리

나 각료, 청와대 비서관 등을 지켰던 인사들이 보이지 않아 참석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날 참석한 국민의 정부 인사는 한숨진 전 감사원장과 김성재 문광부장관 2명 뿐. 김종필·박태준·김석수·이한동 전 총리, 김중권·한광옥·전윤철 전 청와대 비서관장 등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국민의 정부 출신 인사들의 참석률이 떨어진 것은 지난 1일 신년하례식에서 만난 지 며칠 지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매년 6월 15일 6·15 공동선언 기념일과 12월 9일 노벨평화상 수상 기념식을 성대히 열어 그 행사에 집중하기 때

문이라는 게 최경환 전 비서관의 설명이다.

하지만, 평민당 한화갑 대표는 “노무현 정부 인사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최측근뿐 아니라 총리며 각료를 지낸 인사들이 총 출동, 노 대통령을 기리는데 김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은 결집력이 떨어진 느낌”이라며 “화합 인사를 위해 총리며 비서관장 등 중요한 자리 대부분을 전 정부 인사나 타지역 출신에게 줬는데 결국 이런 상황이 됐다”고 아쉬워했다.

한 대표는 또 “동교동계가 임명직에 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의를 해 김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드렸는데 아직도 대통령 곁에 남아있는 인사들은 동교동계 식구들뿐”이라며 눈물을 글썽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한나라 광주시·전남·전북도당 사고지구당 지정

## 당분간 위원장 없이 운영

한나라당은 6일 광주시당과 전남도당, 전북도당을 사고지구당으로 지정했다.

한나라당 대변인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당과 전남도당, 전북도당 위원장에 적합한 참신한 지역 인재 영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마땅한 인물을 찾지 못했고,

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지역 당원 간 갈등이 유발되는 등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시·도당을 사고지구당으로 지정했다”며 “이는 참신한 인재의 발굴과 영입을 통해 지역 내 조직 강화를 새롭게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또 “추후 적절한 시기에 사고 시·도당위원장 선출 또는 직무대행자 임명을 할 방침이며, 호남

지역 당 조직력을 강화를 통해 2012년 총선·대선을 대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덕성과 능력을 겸비한 유망한 정치인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천해 나갈 것이며, 당 조직 내실화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당과 전남도당, 전북도당은 지난해 7월 시·도당대회를 통해 시·도당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했으나 시·도당대회 진행상의 여러 문제점과 갈등으로 인해 선출절차를 잠정 보류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민주, 무상의료도 당론 추진

민주당이 6일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의료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열린 정책위중에서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관련법 제·개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발표된 방안은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일반 진료비의 건강보험 부담률을 현행 61.7%에서 90% 수준으로 높이고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10% 이하로 낮춤으로써 실질적 무상의료를 실현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이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의료 추진에 나선 것은 한나라당 유력 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가 최근 복지 행보를 가속화하면서 복지 이슈를 여

권에 선점할 수 있다는 위기감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지난 10.3 전당대회에서 당 강령으로 명문화한 무상의료 방안을 구체적 정책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무상급식에 더해 무상의료와 무상보육, 대학생 반값 등록금 정책 등을 보편적 복지의 최우선 실천과제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구체적 재원 대책 등 현실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박진숙 의원), “보편적 복지를 추진해 나가고 해서 중도개혁 부분을 포기해선 안된다”(김성순 의원) 등의 지적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국회 문방위원장

## 전재희 의원 내정

한나라당은 문화관광으로 내정된 정병국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사임함에 따라 자당 문방위원장 후보로 3선의 전재희(경기 광명)를 의원을 내정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한 핵심 당직자는 이날 “18대 국회 들어 상임위원직을 갖지 못한 한나라당 3선 의원으로는 이인기, 장광근 의원도 있지만, 이들은 올 하반기부터 각각 행정안전위원장, 국토해양위원장 맡을 예정”이라며 “이렇게 되면 당내 3선 의원 중 국회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은 의원은 전재희 의원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since 1985. CH 중국문화원 | 광주분원

## 정통침구학 수강생 모집

공개강좌 및 설명회

광주20기) 1월 21일(금) 14:00-17:00

광주분원 위치: 지하철 화정역 4번출구 추신회관 뒷편

\* CH중국문화원은 침구학 및 대체의학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곳으로 의료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침구학 기본과정

- 자격: 침구학에 관심있는 분 · 월회비: 9만원(교재포함)
- 기간: 매주1회 3시간 / 총 16주(4개월)과정
- 주요과목: 전통침구학/침뜸기초/부항/경혈각락/비만침법/미용침법/중국수침/한방기초 등
- 가정생활 진단(자가)상식을 위한 세미나입니다.

### 연수과정

- 소정의 연수과정 수료후 침구계(3년),중의계(5년),결업증과 중국 침구사, 국가자격증 취득가능(해외사용가능)
- 의료 관련 업종의 소득증대효과, WTO개방 대비
- 세계 각국 해외 이민시 한방병원 설립 및 취업

CH 중국문화원 www.wchina.co.kr

전국대표번호 : 1544-5359  
광주분원 : 062)236-3516

남성 휴대용

## 실물과 똑같은 내여자

[꿈꾸는 공주]

내 여자가 장안에 화제가 될만큼 몸매가 모델을 뺄지는 못하지만 기가 예뻐서 혼자서도 잘 팔리는 마네킹 보드랍고 말랑거리는 피부 촉촉이 는 눈동자 가슴과 신체 부위가 섬세한데 키는 1m50이 되며 색시하니 꿈인지 생인지 헷갈린다. 본능적인 성욕을 해소하면 정신 건강에도 유익하고 '성병'의 예방도 되니 내여자가 인기몰이로 불리다.

주문량 폭주

\* 8만원 상당의 선물과 휴대용 가방도 드립니다.

(식약청 USA 통관제품)

## 인기폭발 “양코”

본 제품은 식약청 통관 미국 직수입품입니다. 30대부터 80대까지 저구려이 당당해 지므로 섭취하신 분이 다시 찾습니다. 본 제품은 의약품이 아닙니다.

농협 02302-469931(정의철)

생노병사 불노장생 책을 드립니다

사이텍 070-7786-6631 010-6306-7070 (미쓰고) 070-7786-9710 010-7102-7070

## 부실채권 (못받은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개인차용금·공증·판결문·각종못받은돈

선수금없음, 후불제(착수금)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수수료(회수 금액의 30%이내),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 텔레마케터 수시모집  
◎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

## 새한신용정보(주)

062)228-0990, 010-8494-9484

## 생각보다 좋은 비누 평미인

평미인은 (사단) 아세아-태평양 자연 의과학 연구재단에서 제조기술을 제공한 것으로 우리 물 속 70% 물과 외부에서 씻는 물을 동조시켜 피부통로를 열리게 하여 몸속의 필요없는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나오게 하는 원리입니다.

- \* 주요성분
  - 특수 숙성된 식물성 유지
  - 살구씨 오일 및 분말
  - 100% 천연향 로즈마리
  - 천연신소재 HJ-1.2
  - 글리세린
- \* 사용범위
  - 모든 환자의 전신 목욕
  - 유아목욕, 노인 냄새 제거
  -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
  - 잦은 화장을 하는 여성
  -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
  - 환자를 많이 다루는 사람
  - 피부질환(아토피, 여드름, 무좀, 습진, 비염)
  - 치질로 고생하는 사람
  - 입냄새, 입술터짐, 이가 시리고 아픈사람
  - 농약을 다루는 사람의 목욕

비누 사용시 유의사항

- 5분간 2회 이상 비누 맛사지
- 보관시 다른 비누와 따로 보관
- 처음사용시 5분 2회 손 \* 발 맛사지 후 사용

◆ 광주·전남·북 판매점/판매원 모집 ◆

상담문의 ☎ 010-3231-3665